



내선일체의 멜로드라마와 식민주의의 균열

- 이광수의 내선 연애결혼 소설을 중심으로

All in one Korea-Japan(Nae-sun-il-che) Melodrama and the Rupture of
Colonialism in LeeKwang-su's Works of Korea-Japan Love and Marriage Kim

저자 김경연
(Authors) Kim, Kyoung-yeon

출처 [어문학 114](#), 2011.12, 301-334 (34 pages)
(Source)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14](#), 2011.12, 301-334
 (34 pages)

발행처 [한국어문학회](#)
(Publisher)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758903>

APA Style 김경연 (2011). 내선일체의 멜로드라마와 식민주의의 균열. 어문학
 , 114, 301-334.

이용정보 고려대학교
(Accessed) 163.152.3.31
 2016/06/15 18:1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내선일체의 멜로드라마와 식민주의의 균열*

- 이광수의 내선 연애·결혼 소설을 중심으로

김 경 연**

<차례>

- | | |
|--------------------------|-------------------------------|
| 1. 일제말기 한 식민지 지식인의 내면 풍경 | 3. 내선인(內鮮人)의 이중구조, 환상과 사실의 착종 |
| 2. 내선일체와 마음의 협화(協和) | 4. '일체'의 판타지와 '균열'의 아이러니 |
| | 5. 결론을 대신하여 |

1. 일제말기 한 식민지 지식인의 내면 풍경

한 식민지 지식인의 고백을 인용하는 것으로부터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문제는 늘 간단명료하였다. — 너는 일본인이 될 자신이 과연 있는가. 이런 질문은 다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일으켰다. 일본인이란 무엇인가?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하는가? 일본인이기 위해서는, 조선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¹⁾ 결코 간단명료하지 않을 이 질문 앞에서 해답 없이 번민했던 그는 마침내 이 정체성의 간극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선언한다. “지성적인 이해나 이론적인 조작”만으로 해결 불가능한 의심의 “마지막 장벽”을 통과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인가. 1944년 새해 첫날 이 식민지 지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7-361-AM0059)

**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1) 최재서, 『받들어 모시는 문학』, 『친일문학작품선집 1』, 김병걸·김규동 편, 실천문화사, 1986, 389쪽. 이하 최재서의 같은 글 인용시에는 쪽수를 표시하지 않음.

식인은 흔들리는 자신을 수습하기로 마음먹고 창씨(創氏)를 하고 조선신궁에 참배한다. 그러자 상황은 순식간에 돌변한다. 신의 위패 앞에 깊이 머리를 숙이는 순간 그는 마치 “맑은 대기 속에 빨려들어 모든 의문에서 해방된 느낌”을 경험한다. 지성도 이론도 넘지 못하는 견고한 벽을 통과 가능하도록 했던 것, 그것은 지성이나 이론이 아닌 ‘신/천황’에 대한, 혹은 어떤 절대적인 ‘환상’에 대한 신앙이자 완전한 귀의였다. 신/환상에 자신을 기투한 그는 이제 의심을 망각하고, 마침내 정의할 수 없는 것을 정의내릴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는 마침내 “일본인이란 천황에 봉사하는 국민”이며, “받들어 모시는 문학은 천황에게 봉사하는 문학”이라 의미를 지정하기에 이른다. 그의 이름은 식민지 조선 문단에서 가장 지성적인 비평가로 등재되었던 ‘최재서이자 이시다 코조(石田耕造)’이다.

최재서이며 이시다 코조(石田耕造), 달리 말해 최재서를 지운 이시다 코조는 그렇다면 과연 일본인인가. 우리는 어쩌면 최재서의 의문이 끝난 지점, 질문이 마침내 해답을 구한 그 투명한 지점에 다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향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목표”와 “지성적 이해”, “감성적 습관”과의 “불일치” 혹은 “간격”을 어느 날 아침 한순간에 지우고 ‘신앙’을 빌어 일본인이 되는 것과, “그 어떤 이론적 조작을 거치지 않고도” 일본인(국민)인 것은 과연 동일할 수 있는가.²⁾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이시다 코조로 이름만 바꾼 여전히 조선인인 것인가. ‘최재서-이시다 코조(石田耕造)’, 명쾌하게 조선인도 일본인도 아닌, 혹은 조선인이자 일본인이며, 일본인이자 조선인인 그는 누구인가. 이 식민지의 혼종적 주체에게 가장 합당한 명명은 어쩌면 ‘내선인(內鮮人)’이 아닐까. 조선인과 일본인의 ‘사이’를 왕복하며, 국민(일본인)이 되기를 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힘을 뚫고 유령처럼 민족(조선인)이 불쑥불쑥 귀환하는, 국민과 민족이 이접된(disjunction) 존재. 그리하여 제국의 언어(國語, 일본어)로 식민지(민족)를 쓰며, 해방의 감격 위에 번

2) 최재서는 「받들어 모시는 문학」에서 일본인이란면 그 어떤 이론적 조작을 거치지 않고도 체현할 수 있는 국체(國體)가 조선인은 결핍되어 있으므로 일본의 『고사기』나 『일본서기』, 『만엽집』을 읽어도 동조동근론, 팔굉일우(八紘一宇)나 내선일체 등의 주장에 지성적·감정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고백한다.

민(균열)을 겹쳐 쓰는 이 불투명한 임계적(liminal) 존재들의 이중적 글쓰기를 협력/저항, 친일/반일의 이분법적 틀로 투명하게 읽어내는 것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어쩌면 식민주의가 생산한 그들의 불투명함, 혹은 불투명한 그들의 존재가 오히려 식민주의를 균열하는(내과하는) 침예한 지점인 것이 아닐까.

이 글은 일제말기 식민지 조선인과 제국 일본인의 연애와 결혼을 다룬 내선 연애·결혼 소설을 이들 ‘내선인(內鮮人)’들의 텍스트로 재독하고자 출발하였다.³⁾ 이는 내선 연애·결혼 소설에 대한 기왕의 연구들이 견지해온 저항/협력의 이분법적 빗금을 풀고, 그 불확실한 ‘사이’ 지대를 탐사하고자 함이다. 또한 그것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사랑이나 이별에 관한 서사가 아니라, ‘내선인’과 ‘일본인’의 결연과 결렬을 다룬 멜로드라마로 내선 연애·결혼 소설을 다시 읽고자 하는 것이다.⁴⁾ 본고는 이러한 논의의 출발이며, 따라서 이 글에서는

- 3) 일제말기 내선 연애·결혼 소설의 대부분은 일본어(국어)로 쓰이거나 조선어·일본어를 혼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참고로 1938년 3차 교육령 개정 당시 조선인 중 ‘고쿠고(일어)를 대체로 해독하는 자’와 ‘보통회화에 차질이 없는 자’를 모두 합하여 12.38% 정도였으며, 1940년에 15.57%, 1943년에는 22.15% 정도였다. 近藤劔一 편, 『太平洋戰下終末期朝鮮の治政』, 朝鮮史料編纂會, 1961, 199-200쪽, 황호덕, 『國語와 朝鮮語 사이, 內鮮語의 존재론』, 『대동문화연구』 제58집, 2007, 169쪽 재인용. ‘내선인’이라는 문제의식은 황호덕의 내선어 논의에 자극받은 바 크다.
- 4) 일제말기의 내선연애나 내선결혼 소설을 본격적으로 조명한 연구는 이상경의 「일제말기 소설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층위」이다. 이 논문은 이광수와 한설야의 소설을 중심으로 하되 일제 말 내선 연애·결혼 소설의 대부분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 소설들을 크게 내선결혼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분류하고 이를 내선일체론에 대한 작가의 정치적 입장과 태도가 결부된 것이라고 해석한다. 다시 말하면 내선결혼 긍정론을 식민주의에 대한 ‘협력’으로 부정론을 ‘저항’으로 읽어내는 것이다. (이상경, 「일제말기 소설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층위」, 『친일문학의 내적논리』, 역락, 2003, 121-152쪽) 이후 내선 연애·결혼 소설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상경의 저항/협력의 분석틀을 유지해 왔으며 여기에 보다 세부적인 독법을 첨가하는 방식이었다. 조진기의 「내선일체의 실천과 내선결혼 소설」(『한민족어문학』 50, 한민족어문학회, 2007, 433-466쪽)이나 박은희의 「난망적 사랑과 프로파간다」(『인문과학연구』 36집, 2011, 167-188쪽) 역시 이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조진기는 내선의 결연이 실패하는 한설야와 이효석의 소설을 당시의 시국적인 소재만 취했을 뿐 내선일체와 무관한 단순한 연애소설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저항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 연구로는 심진경의 「식민/탈식민의 상상력과 연애소설의 성정치」(『민족문화사연구』, 2005, 163-189쪽)와 조윤정의 「내선결혼 소설에 나타난 사상과 욕망의 간극」(『한국현대문학연구』 27, 2009, 241-276쪽)이 있다. 심진경은 이광수와 한설야의 소설을 통해 제국의 남성과 식민지의 여성이 결연에 성공하는 반면, 제국의 여성과 식민지의 남성이 조우할 경우 결연에 실패하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식민/탈식민의 상상력과 결부해 내선일체의 균열로 읽어낸다. 조윤정은 연애와 결혼이라는 개인적 문제를 신체제(식민주의)의 사건으로 변모

먼저 내선 연애·결혼 소설이 등장하게 된 계기인 내선일체론의 진상을 살피고, 아울러 이에 연동했던 내선인(內鮮人)들의 의식적 심층을 추적해 볼 것이다. 이는 내선일체의 멜로드라마와 식민주의의 관계를 재독하는 데 중요한 참조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로를 밟아 본고에서는 우선 일제말기 이광수의 내선결연 소설을 통해 식민주의의 균열을 읽어보고자 한다.

2. 내선일체와 마음의 협화(協和) – 모양과 마음과 피와 살의 일체는 가능한가

최재서가 지성과 이론 너머의 문제라고 토로한 ‘내선일체’는 주지하다시피 일제 말기 새로운 식민주의의 전략이었다. 미나미(미나미지로, 南次郎) 정치, 미나미 이데올로기라고도 불린 내선일체론은 식민지 조선과 제국 일본의 화합이나 융화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다.⁵⁾ ‘융화’와 ‘일체’는 어떻게 다른가. ‘융화’가 조선인(민족)의 존재를 여전히 승인한 것이라면, ‘일체’란 조선인의 존재를 중국에는 부인하는 것, 조선인이 일본인과 “모양도 마음도 피도 살도 모두가 일체”⁶⁾가 되는 것이며, 그리하여 조선인을 황국신민(일본국민)으로

시킬 때 투입하게 되는 ‘집단적 사상(파시즘)’과 ‘개인의 욕망’ 사이의 간극을 읽어내고 있다. 심진경이나 조윤정의 연구는 내선 연애·결혼 소설을 저항/협력의 소박한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텍스트에 기입된 식민지의 균열을 읽어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역시 소설 속의 내선 간 연애·결혼을 조선인(피식민자)과 일본인(식민자)의 만남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의 연구들과 인식을 공유하는 지점이 있다. 그러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조선인은 이미 조선인이라는 투명한 정체성으로 귀납되지 않는, 즉 이 글에서 내선인(內鮮人)이라고 명명한 균열을 담지한 혼종적 주체인 것이다.

- 5) 미나미 지로는 1940년 잡지 『모던 일본』 <조선판>에 수록된 대담에서 조선 병합 당시는 융화가 방침이었지만 지금은 내선일체라고 언급해 내선융화와 내선일체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미나미 지로, 「미나미 총독은 말한다.본지 기자와의 대담록」, 『일본잡지 모던 일본과 조선 1940』, 홍선영·박미경·채영님·윤소영 역, 어문학사, 2009, 68쪽. 미나미 지로는 식민지 조선의 제7대 총독이며, 1940년 『모던 일본』의 <조선판>에 실린 글 「역대 조선총독을 말하다」에는 그를 “내선일체의 구현자”로 소개하고 있으며, 그의 식민지 통치 정책을 ‘국체명칭(國體明徴), 선만일여(鮮滿一如), 농공병진(農工並進), 교학진작(敎學振作), 서정쇄신(庶政刷新)’이라 정리하기도 했다.
- 6) 시오하라 도키사부로(鹽原,時三郎), 「조선의 황국신민운동」, 『일본잡지 모던 일본과 조

완전하게 회수하는 것이었다. 이 낯선 식민통치의 기획은 추상적 구호를 넘어 통치 시스템의 현실적 변화를 불러오면서 식민지의 일상을 촘촘히 규율하는 물질성을 획득해 간다.⁷⁾

그러나 조선인을 식민지 토인이 아닌 ‘동포’로 호명하고 내선의 차별 없는 새로운 황국의 국민으로 호출하는 이 통치 전략은 그 때 혹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이론”이나 “주판을 튕겨야 하는 조건”으로는 이해가 요원한 “정(情)”과 “눈물”⁸⁾의 영역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과학과 이성과 합리를 넘어서는 내선일체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의심과 번민의 심적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육체의 한 몸이 되는 것보다 더욱 절박한 것이 “정신”⁹⁾의 내선일체였으며, “마음과 마음이 만나” “사랑하고 동정하는”¹⁰⁾ 마음의 협화였던 것이다. 조선과 일본을 공감의 공동체로 묶어내는 이 심적(心的) 신체체의 구현이야말로 내선일체의 논리 속에 숨어 있는 강제성(폭력성)의 흔적을 자발성의 외피로 합법화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형식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일제말기 내선일체의 국책(國策)에 연동하는 각종 담론 매체들 속에는 내선(內鮮) 양자의 이해와 포용을 촉구하는 언설들이 흔히 배치되었으며,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사랑과 정(情)의 레토릭으로 치장되곤 했다. 마음의 신체체를 실현하려는 이러한 욕망이 식민지 조선의 매체뿐만 아니라, 제국 일본의 미디어를 점령했음은 물론이다. 일본에서 발행된 잡지 『모던 일본』은 이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선 1940』, 81쪽. 당시 일본잡지 중 <조선판>을 낸 것은 『모던 일본』이 유일하다.

- 7) 1937년 일본 각의에서는 미나미 지로 조선 총독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선통치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는데, 조선의 학교교육 쇄신을 통한 황국신민의 자각과 자질 강화, 조선인 지원병 제도 채용, 일본의 국제관념을 명징하고 국어(일본어)의 보급 등을 통한 황국신민의 의식배양, 일본인의 조선 정착 확대 도모 등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조선교육령 개정, 육군지원병 제도 창설,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결성, 일본어 상용강제, 창씨개명 실시’ 등을 추진한다. 김승태, 「일본의 식민지배와 식민 통치 이데올로기」, 『근대열강의 식민통치와 국민통합』, 동북아역사재단, 2010, 231-233쪽 참조.
- 8) 이광수, 『행자(行者)』(『문학계』, 1941. 3), 『춘원 이광수 전일문학전집 II』(이경훈 편역), 평민사, 1995, 203쪽.
- 9) 현영섭, 「내선결혼론」, 『新生朝鮮の出發』, 大阪屋號書店, 1939, 94쪽. 장용경, 「일제말기 내선결혼론과 조선인 육체」, 『역사문제연구』 제18호, 역사비평사, 2007, 202쪽 재인용.
- 10) 이광수, 「동포에게 부침」, 『춘원 이광수 전일문학전집 II』, 125쪽.

『모던 일본』은 1939년과 1940년 두 번에 걸쳐 <조선관>을 발행하는데, <조선관>에서 먼저 눈길을 끄는 대목은 내선일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설, 좌담, 대담들에서 제기되는 내선(內鮮) 평등에 관한 논의들, 그리고 사랑, 화해, 존경, 이해 등의 수사를 동원하며 마음의 일체를 촉구하는 언설들이다.

게다가 천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일본민족의 어디에 종족간의 이질성이 남아 있는가. (중략) 현재 우리들 일본민족의 피 속에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대륙의 피가 섞이지 않은 자가 없다. 그만큼 완전히 혼용해 버린 것이다. 그만큼 내선(內鮮) 두 민족은 가까워서 신속히 융합·통일될 수 있다. (중략) 이 사상과 대조되는 것이 내지인의 우월감이며 반도인에 대한 몰이해, 성급한 동화 불능 관념이다. 일본민족의 피 속에는 조선, 중국은 물론 생만(生蠻), 말레이인이나 네그리트인, 심지어는 유대인의 피조차 이미 수세기 전부터 섞여 있다. 만방과 협화하고 백성을 소명하여 동화해락(同化偕樂)하도록 하는 것이 일본민족 본연의 모습이며 이것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장점이다. (중략) 이 특질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내지인 가운데는 너무 많다.”¹¹⁾

“백인이 일본인을 대하는 태도로 내지인이 반도인을 대한다면 그것은 동포라고 할 수 없을 걸세. 이런 점에서 크게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되지. 반도인에게 덕의를 품지 않는다면 우리가 외국인에게 갖는 반감을 조선인은 우리에게 느낄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네. 함부로 우월감에 빠지는 것은 오히려 일본의 긍지를 파괴하는 일일세. 내선일체의 근본방침은 (중략) 천황의 적자로서 충성을 다하고 동포를 사랑하는 것이네, 하물며 차별을 한다는 것은 천황의 성지(聖旨)를 받드는 것이 아니네. 내선일체의 목표는 거기에 있다네.”¹²⁾

유계 :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말씀하시겠지만 내지인이 조선인을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소에지마 : 동감입니다. 더욱 조선을 이해하고 조선인을 아껴주었으면 합니다.

기무라 : 저도 동감입니다.

11) 미타라이 다쓰오(御手洗辰雄), 「내선일체론」, 『일본잡지 모던 일본과 조선 1939』, 홍선영·박미경·채영남·윤소영 역, 어문학사, 2007, 110-111쪽.

12) 미나미 지로, 「미나미 총독은 말한다」, 『일본잡지 모던 일본과 조선 1940』, 67-68쪽.

아카보시 : 어느 쪽도 우월감을 갖지 말고 정말 형제로서 서로 도와
으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춤추는 훌륭한 사람…….

마키노 : 최승희 씨 말입니까?

아카보시 : 그 사람도 그렇고 올림픽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내지
젊은이들은 좋아들합니다. 좋아는 하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다고
할까, 흔쾌히 기뻐하지 못하는 듯해요. 내지인은 내지인이 뛰어나
다고 생각하고 조선인은 원래 일본인은 자기네들이 가르친
인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서로 그런 주장만 하지 말고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세키야 : 요는 경애하는 마음이었지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후략)¹³⁾

인용문에서와 같이 내선일체를 옹호하는 직접적 발화들과 더불어,
『모던 일본』의 <조선편>에는 조선인 여아(女兒)를 입양해 훌륭하게
성장시킨 일본인 부모의 미담이 소개되는가 하면, 황국신민의 의무
를 다하고 감격스럽게 죽어가는 조선인 지원병의 이야기가 내선일
체의 강한 파토스를 담아 서사화 되기도 했다. 한편 마음의 내선 협
화를 향한 지향은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을 통해 구현되기도 했는데,
가령 잡지는 조선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서로에 대한 생각을 주고받
는 ‘엽서회답’, ‘내선문답’, ‘교우록’ 등과 같은 코너를 기획하고, 조
선 작가들의 소개나 조선 문학의 배치 등을 통해 식민지와 제국 사
이에 놓인 마음과 정신의 거리를 메우고자 시도했던 것이다.

『모던 일본』의 경우를 길게 언급했는데, 이는 내선간의 마음·정신
의 동화를 성취하는 것, 달리 말해 조선인(피식민자)의 마음과 정신
을 동원하는 것이야말로 내선일체의 중국적 실현을 담보할 것이라
는 제국의 구상을 보여주는 긴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현영섭의
주장을 빌어 말하자면, “내선일체는 서로가 함께 사랑하는 경지에까
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¹⁴⁾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동정(同情)’을 통한 내선의 결합이야말로 내선일체론이 함
축하고 있는 위계와 강제를 비위계적인 제휴나 자발적인 동의의 형

13) 「조선의 어제와 오늘을 이야기하는 좌담회」, 『일본잡지 모던 일본과 조선 1940』, 174쪽.

14) 현영섭, 「내선일체 완성에의 길」, 『친일논설선집』(임종국 편), 실천문화사, 1987, 120쪽.

식으로 오독하게 함으로써 그 윤리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이기도 했다. 일제말기 내선통혼(內鮮通婚)의 요구는 이와 같이 “감정혼련을 통한 내선일체”¹⁵⁾를 구상했던 식민권력이 창안한 전략적 고안물이었다. 내선결혼이야말로 “칠천만 대 이천만이라는 양대 민족이 혼연일체의 한 국민”¹⁶⁾이 되는 몸과 마음의 결합을 재현하는 형식이자, “내선일체가 된 아름다운 모습”¹⁷⁾을 효과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스펙터클일 수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1938년 내선일체 강화를 위한 내선통혼 장려책을 시행하고, 1940년에는 국민총력조선연맹(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주도로 당해에 이루어진 내선결혼 부부 건수를 조사하는가 하면, 1941년에는 미나미 지로 총독이 이들에게 직접 표창장과 기념품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한다.¹⁸⁾

일제 말기 식민지의 내선 연애·결혼 소설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소 돌출적으로 등장한다. 이인직의 「貧鮮郎의 日美人」(1912)이나 염상섭의 「남창서」(1927) 등이 조선인과 일본인 남녀의 연애나 내선결혼이 잉태한 혼혈인의 문제를 다룬 바 있었으나, 식민지의 문학이 내선 간 연애·결혼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내선일체론이 발동하기 시작한 1930년대 말부터 1940년대 전반기까지의 특정 시기였다. 내선 남녀의 사랑을 그린 멜로드라마적 서사물을 조선/일본, 식민지/제국의 관계를 재현하는 알레고리적 텍스트로 주목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멜로드라마란 가장 개인적인 곳에서 가장 국가적인 것을 표상하는 장치라는 이영재의 지적이나,¹⁹⁾ 국가나 민족 간의 연애 시나리오란 항상 민족·인종·국가 간의 다양한 갈등을 상상적으로 해결하려는 식민주의/국가주의의 욕망을 재현하는 서사물이라는 사카이 나오키의 언급을 환기해 보면,²⁰⁾ 일제말기 내선 연애·결혼 소

15) 인정식, 「내선일체의 문화적 이념」, 『인문평론』, 1940. 1, 4쪽.

16) 이광수, 「내선일체와 국민문학」,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 II』, 68쪽.

17) 「미나미 총독은 말한다」, 『일본잡지 모던 일본과 조선 1940』, 69쪽.

18) 장용경, 앞의 글, 196-197쪽 참조.

19) 이영재, 「황군의 사랑, 왜 병사가 아니라 그녀가 죽는가」, 『근대 한국, ‘제국’과 ‘민족’의 교차로』,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기획, 책과함께, 2011, 123쪽.

20) 사카이 나오키 지음, 최정옥 옮김, 『일본, 영상, 미국』, 그린비, 2008, 41-44쪽 참조.

설이 지닌 정치적 함의는 더욱 간단치 않은 문제로 떠오른다.

일제말기 母語(조선어)가 아닌 國語(일본어)로, 또는 조선어-일본어의 이중 언어로 창작을 수행했던 식민지 작가들에게 식민권력이 추동한 이와 같은 동화의 국책은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지점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비단 “예술의 신체제”를 주장하고 문학이 “신체제 각 방면의 병사에게 보내는 위안과 격려와 희망의 격서”²¹⁾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광수나, “문예는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높은 뜻에서 정치 그 자체”²²⁾임을 선언했던 최재서와 같이 식민권력의 욕망을 선언적으로 내면화한 작가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현영섭의 말대로 “예술의 세계에서의 내선일체야말로 정치·도덕보다도 더욱 필요”하며 “정치적·도덕적 내선일체의 참된 건설은 예술적 내선일체의 수립이 완성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따라서 실제로 “내선간의 연애 다수가 비극으로 끝났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파탄의 현실을 상상적으로 봉합하는 “우정에서, 연애에서, 결혼에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²³⁾의 창조였으며, 일제말기 내선 연애·결혼 소설들은 바로 이러한 창조의 국책(國策)에 식민지 작가들이 일정하게 ‘반응한’ 서사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식민지의 내선인 작가들이 식민권력의 국책에 ‘반응’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반응한다는 것이 언제나 협력/저항의 이분법적 틀 안에서 매끄럽게 왕복운동 할 수 있는 것인가. 현실을 초월한 허공의(진공의) 글쓰기가 아닌, 현실과 반응하는 글쓰기관 이미-항상 협력/저항의 단선적 틀을 초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때문에 반응한다는 것은 식민주의를 완전히 내면화하거나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투명한 몸짓이 아니라, 실은 부단히 착종과 굴절, 미끄러짐과 균열이 발생하는, 또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이 아닐까. 이는 어쩌면 내선인(內鮮人)이라는 작가의 위치, 즉 동화와 이화의 틈새에서 갈등하고 분열하는 식민지적 주체의 위치가 필연적

21) 이광수, 「심적 신체제와 조선문화의 진로」, 『친일문학작품선집 1』, 82쪽, 83쪽.

22) 최재서, 「문학자와 세계관의 문제」, 『친일문학작품선집 1』, 373쪽.

23) 현영섭, 앞의 글, 119-120쪽.

으로 생산하는 잉여의 지점일 지도 모른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잉여가 발생하는 지점, 다시 말해 내선일체론에 연동했던 내선인들의 의식적 저변과 그 심적 구조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3. 내선인(內鮮人)의 이중구속, 환상과 사실의 착종

해방 직후 김동인은 근대 문단 30년을 회고하는 자리에서 식민지 작가가 경험한 글쓰기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술회한 바 있다.

純 口語體로 過去詞로—이것은 기정방침이라 「자기 방으로 돌아온다」가 아니고 「왔다」로 할 것은 예정의 방침이지만 거기 계속될 말이 「カノ女」인데 머리 속 소설일 적에는 「カノ女」로 되었지만 조선말로 쓰자면 무엇이랴 쓰나? 그 매번을 고유명사(김 모면 김 모, 엘리자벳이면 엘리자벳)로 쓰기는 여간 군잡스런 일이 아니고 조선말에 적당한 어휘는 없고……(중략) 이때에 있어서 ‘일본’과 ‘일본글’ ‘일본말’의 존재는 꽤 큰 편리를 주었다. 그 어법이며 문장 변화며 문법 변화가 조선어와 공통되는 데가 많은 일본어는 따라서 선진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중략) 소설을 쓰는 데 가장 먼저 봉착하여—따라서 가장 먼저 고심하는 것이 ‘용어’였다. 구상은 일본말로 하니 문제 안 되지만, 쓰기를 조선글로 쓰자니, 소설에 가장 많이 쓰는 「ナシカシク」 「~ラ感ツタ」 「~ニ違ヒナカシタ」 「~ラ覺エタ」같은 말을 「정답게」 「을 느꼈다」 「틀림(혹은 다름) 없었다」 「느끼(혹 깨달)었다」 등으로—한 귀의 말에, 거기에 맞는 조선말을 얻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하였다.²⁴⁾

구상과 쓰기의 불일치, 말과 글의 불일치에 대해 언급한 김동인의 발언은 어찌 보면 식민지 조선 작가가 풀어야 했던 가장 심각한 난제가 과거(조선/전근대) 문학의 극복이라기보다, 차라리 제국과 식민지 ‘사이’를 살았던 식민지적 주체의 분열이었음을 고백하는 듯하다. 조선인이었으나 일본에서 근대문학을 배웠고, 일본어로 구상하고 일본어를 다시 조선어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문학을 했던 김동인

24) 김동인, 「문단삼십년사」(1948. 3~1949. 8), 『김동인전집 6』, 삼중당, 1976, 19-20쪽.

의 혼란은 식민지-제국-식민지의 경로를 부단히 유동했던, 즉 조선과 일본의 이중구속 하에 있었던 대부분의 식민지적 주체들이 봉착했던 딜레마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선일체를 부르짖던 식민권력이 제시한 길은 바로 조선-일본을 동시에 살지 않는 것, 곧 조선을 삭제하고 철저히 일본을 사는 것이며, 조선/민족을 망각하고 일본/국민으로 수렴되는 것이었다. 일본 국민이 되는 구체적 방법이란 무엇인가. 이는 무엇보다 ‘일본정신’을 담고 있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같은 결론에 이른 식민권력은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면서 조선어를 수의교과(선택과목)로 전환하고 일본어의 상용 및 전용을 강제해 갔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해 식민지의 내선일체론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광수와 현영섭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조선인으로서 조선어에 대해 일종의 애착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는 천황께서 쓰시는 말을 우리의 국어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략)일본어는 우수한 일본정신을 담고 있으며, 일본문은 이제 바야흐로 세계 문화를 전부 포섭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어를 공부하는 것은 일본정신을 배우는 동시에 세계문화의 창고 열쇠를 잡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어는 바야흐로 일약 아시아 제민족의 공통된 국어가 되고 있다. 따라서 조선인은 마땅히 국어에 정통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문학에 야심이 있는 사람은 줄줄 일본문으로 써야 한다.²⁵⁾

(나)생활적으로, 예술적으로, 조선인이 일본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방법은 **고쿠코(國語 : 일본어, 인용자)**의 상용일 것이다. 미인이 된다고 하는 고추.그러나 위장병에 걸릴 정도로까지 고추를 지나치게 먹는 것은 어떨까 하지만-를 먹어도 좋지만 조선인이 ‘고쿠코’를 예의상 사무상으로만 사용하고, 가정생활·사회생활에서 상용하지 않는다면 조선인은 도저히 일본인이 되 지는 못할 것이다. (중략) 일체(一體)가 되어서 살겠다고 맹세했다면 우선 국민 사상통일에서-근본적 사상을 통일해야 하는 것이며 양복을 전부 일본 옷으로 통일하는 식의 통일은 압제이다. 반드시 언어의 통일을 촉진해야만 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조선어를 사용하는 한 조선인의 ‘고쿠코’는 ‘외국어’의 일종이 되고, 국민사상은 외형적 장식

25) 이광수, 「반도의 형제자매에게 보냄」,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 II』, 306쪽.

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 조선인이 진정한 일본인이 되고자 생각한다면 우선 조선어를 망각해버리는 일이 필요하다.²⁶⁾

이광수와 현영섭은 내선일체가 반드시 언어통일을 전제하는 것이며, 따라서 조선어를 망각하고 고쿠고(국어, 일본어)를 쓰는 것만이 진정한 일본인이 되는 길이라 역설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광수와 현영섭의 발언을 통해 우리는 다시 몇 가지 질문들에 봉착하게 된다. 그렇다면 고쿠고로 창작하고 내선일체론을 철저히 내면화했던 이광수와 현영섭은 과연 김동인이 고백했던 딜레마, 곧 식민지적 주체의 균열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인용문 (가)에서 보듯 조선인을 ‘우리’로 호명하고 그러한 조선인/우리가 조선어에 대한 애착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전제하면서도 조선인은 마땅히 고쿠고에 정통해야 하며 조선 작가는 일본문으로 써야 한다고 선언하는 이광수의 발화에서 야기되는 이 새로운 균열은 무엇이며, 또한 이는 궁극에는 초극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러한 질문들보다 앞서 과연 조선어/모어를 망각하고 일본어/국어를 승인함으로써 일본국민이 되고자 했던 이들의 궁극적 욕망은 무엇이었는가. 또한 그것은 제국의 욕망을 동일하게 번역하거나 혹은 그 욕망에 매끄럽게 습합될 수 있는 것이었나. 아마도 이 마지막 질문은 이전의 질문들을 풀어낼 수 있는 입구와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아시아 제 민족”으로 구성된 새로운 일본, 그 대동아 제국에 투영된 내선인들의 욕망,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환상과 현실(사실)의 착종을 읽어보려 하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이광수는 중일전쟁을 전후한 1930년대 후반을 “진정한 전향시대요 보편적 전향 시대”²⁷⁾라 천명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전향에 사상과 이념이 상이한 다양한 세력들이 함께 연루되었다는 사실이다. 무엇이 이광수와 인정식,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를 동일한 전향의 흐름 속에 몸담게 한 것일까. 주지하다시피 그것은 새로운 동양제국의 건설이었다. 이들이 상상한 대동아 제국의 정체란 무엇인

26) 현영섭, 「내선일체 완성에의 길」, 앞의 글, 121-122쪽.

27) 이광수, 「반도민중의 애국운동」, 『진일문학작품선집』, 64쪽.

가. 전향자들의 발화를 인용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자유주의 개인주의의 이윤주의의 구습”²⁸⁾을 극복하고, “자본주의적 식욕을 견제하며 공산주의의 공상을 수정”²⁹⁾한, 즉 서구가 발명한 근대를 초극하고 동양이 구상한 새로운 보편의 창조이며, 이리하여 도래할 동아 제국이란 모든 민족 간의 완전한 평등과 공존공영이 실현되는 ‘도의(道義)의 제국’이자 ‘다문화 제국’이었다.

따라서 이것을 나는 신세기를 태동하는 현대의 에포크 메이킹적인 완전한 역사적 신 계기를 만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이미 세계 신사태의 근본원리가 명백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즉 침략에 대신하는 도의(道義)이며 독점 대신하는 공존공영적 협화이다. (중략) 세계 최대의 침략범인 앵글로 색슨 민족의 문화는 이미 이 정신에 의해서 최종적 심판을 받고 있으며, 일체의 인류문화의 요람지였던 아시아에는 흥아의식(興亞意識)이 충만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분명 아시아 의식의 재생을 의미하며, 학대 받던 아시아에서 자유 발전을 할 수 있는 아시아로, 또 편국화(偏國化)된 세계에서 협화적 공존공영의 세계로 진화 발전해 가야 할 세계 문화의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³⁰⁾

그런데 이제 나는 遠方에서 시급한 주문을 바다 내의 생각한 바 新建設意識을 兩論할 시간의 여유가 없으나 그 대략을 말하면 理想主義 新形態인데 정치적으로 데모구라시와 경제적으로 고텍티브와 사회적으로 휴머니즘을 集結調和하여 단일관념으로 조직한 것이니 理想主義는 新東亞 건설함에 완전무결한 의식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데모구라시를 실현해야 박그로 독재의식을 배척함과 함께 앞으로 孫文의 民族主義와 民權主義를 揚棄하고 또 경제적으로 크래티브를 실현해야 민주주의의 조잡한 견해를 지탄하는 동시에 자본주의의 식욕을 견제하고 공산주의의 공상을 수정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적으로 휴머니즘을 실현함으로써 人文의 발전을 기도하여 萬邦이 協和하는 단서를 지을 것이다.³¹⁾

東亞의 新秩序는 정복 질서가 아니며 지배질서가 아니라 제 민족

28) 이광수, 위의 글, 64쪽.

29) 김명식, 「동아협동체와 조선」, 『삼천리』, 1939. 1, 51쪽.

30) 신갑범, 「세계사의 동양적 전회」, 『친일논설선집』, 94-95쪽.

31) 김명식, 위의 글, 50-51쪽.

공존공영에 인한 협동질서이며 지도질서이다. 따라서 그 정치형태 경제 형태 문화형태도 자본적, 제국주의적, 정복적이 아닐것은 물론이다. 즉 동아신질서 내에 포괄되는 제 민족 사회는 그 자주적 이익이 존중되고 개성 전통, 문화가 한 가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어느 것이나 새로히 형성되는 東亞思想 東亞傳統 東亞文化에 발전적으로 통일된다는 한계 안에서만 자주성이 인정되어야 할 줄로 생각한다.³²⁾

지방경제와 지방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것은 사변(중일전쟁, 인 용자) 이후의 일이지만, 전체주의적 사회기구에서는 동경도 하나의 지방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 아니 그것보다 지방이라든가 중앙이라든가 하는 말로서 정치적 친소(親疎)를 붙인다면 재미없다. 동경도 경성도 같은 전체 안에서의 하나의 공간적 단위에 불과할 것이다. (중략) 이와 같은 자부와 자각을 가질 적에 비로소 우리는 지방에서 봉공(奉公)하는 자기의 직역(職域)에 안심입명할 수 있는 것이다.³³⁾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전향자들이 상상한 서구적 세계와 대비되는 새로운 동양적 세계인 신동아(新東亞)는 침략과 정복이 사라진 국가이며, 모든 서구적 근대의 악을 일소한 ‘도의’, ‘협화’, ‘공존공영’의 휴머니즘적인 협동과 연대의 제국이다. 다민족·다문화가 위계 없이 공생하는 이 윤리적 국가는 김명식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상주의”가 실현된 일종의 “유토피아적 광역권”³⁴⁾인 셈이다. 시인 김중환의 주장처럼 이 새로운 “전체” 안에서는 중심과 주변의 차별이 사라지며 따라서 동경도 경성도 모두 동일한 하나의 공간적 단위인 지방(지역)이 된다. 식민권력에 의해서 입안되고 추동된 대동아공영권 논의, 혹은 대아시아주의는 이와 같이 제국/식민지 간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던 식민지 주체들에게는 일종의 탈식민적 계기로 상상되었으며, 이와 같은 유토피아적 제국의 실현을 위해 내선일체는 반드시 승인해야 할 필요불가결한 조건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상상과 승인의 과정은 일종의 전도(顛倒)를 통해서만

32) 차재정, 「동아 신질서와 혁신」, 『삼천리』, 1939. 1, 67-68쪽.

33) 김중환, 「일지(一枝)의 윤리」, 『국민문학』, 1942. 3.

34) 요네타니 마사후미 지음, 조은미 옮김, 『사이間에서 근대의 폭력을 생각한다』, 그린비, 2010, 161쪽.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대동아 제국이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판타지가 하나의 ‘사실’ 또는 역사적 ‘진실’로 수리될 때,³⁵⁾ 조선·조선인·조선어와 같은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현실은 삭제되어야 하는 비사실/비현실로 뒤바뀌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이한 자리바꿈은 이미 다문화제국의 논리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기도 했다. 인용문의 차재정의 글에서 간파할 수 있듯이, 제 민족의 이익이나 개성, 전통, 문화가 한 가지로 존중되는 것은 새로 “형성되는 東亞思想 東亞傳統 東亞文化에 발전적으로 통일된다는 한계 안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었다. 다문화주의는 “지배하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위협하지 않을 정도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것이거나 차별에 맞서고 있다는 포즈를 취하기 위한 알리바이”로 제공되며 ““다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정체성 가지기를 강요함과 동시에 ‘공인하기’라는 방법으로 반차별투쟁을 거세하는 장치”³⁶⁾라는 정영혜의 비판처럼, 일제말기 식민권력의 대동아공영권 논의는 실은 ‘봉공(奉公)’을 위해서 기꺼이 ‘멸사(滅私)’를 수락하는 확장된 국가주의이며, 이에 공명한 식민지 주체들의 다문화제국 논의는 “식민지 없는 제국주의”³⁷⁾의 알리바이로 언제나 전유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전도를 통해 현실/사실을 점령해 버린 판타지가 다시 식민지 주체들에게 또 다른 판타지(허상)를 조장한다는 사실이다. 이광수의 언급을 빌려 말하자면, 그것은 “호적을 떠들썩어보기 전에는 내지인인지 조선인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그 최후의 이상”³⁸⁾, 곧 동아 제 민족이 모두 완전히 평등한 제국을 실현하는 “백 년 후의 일”(83쪽)을 위해서 지금 당장의 평등을 스스로 유보하고 內鮮의 불평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감수하게 하는 것이다.

35) 1938년 백철은 『조선일보』에 발표한 「시대적 우연의 수리-사실에 대한 정신의 태도」를 통해 북경, 상해, 남경, 서주, 한구 등이 일본에 차례로 함락되는 “동양현실은 우연으로 일러진 커다란 사실”이거니와, “다만 사실 그것에 맞서서 해석”하는 것은 “비참적인 세계관을 설정하는 데 맞는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를 “사실로서 수리”하는 것만이 이 우연한 현실을 통해 “운명적인 관념과 소극적인 도피 이상의 의미”를 얻어내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백철, 「시대적 우연의 수리-사실에 대한 정신의 태도」 『조선일보』, 1938. 12. 2, (조간)4면)

36) 정영혜 지음, 후지이 다케시 옮김, 『다미가요 제창』, 삼인, 2011, 48쪽, 50쪽.

37) 요네타니 마사후미, 앞의 책, 155쪽.

38) 이광수, 「심적 신체제와 조선문화의 진로」, 앞의 글, 69쪽.

그러나 조선인이 “국체관념과 습성과 지력”(72쪽)이 내지인과 동등하지 않다는 식민권력의 위계적/차별적 시선을 내면화하게 될 때, 기실 평등한 제국이 현실화되는 “백 년 후”는 영원히 도래하지 않을 유예된 시간이 된다. 더욱이 최재서의 언급에서 읽히듯, 식민지 주체들에게 ‘국체’의 명징이 일본인이자라면 피로서 체현되는 것이라 인식되는 한, 조선인의 일본인 되기라는 내선일체의 기획은 실현 불가능할 판타지로 남을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조선인이 행하는 내선일체의 종국은 결국 ‘일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화’되는 것이며, 따라서 조선인이 대동아 제국의 평등한 국민이 되는 것 역시 결국에는 요원한 일이 되는 셈이다. 어쩌면 내선일체에 내재된 이러한 전도와 모순이, 일제말기 유토피아적 보편의 욕망 속에 연루되었던 식민지적 주체들이 김동인이 체감한 것과는 또 다른 균열을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는지도 모른다. 가령 이광수의 다음과 같은 발화에서 우리는 이 신종의 균열을 목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가) 문학은 어찌할까. 지금 조선에서 가장 조선적 특색을 가진 문화 부문은 문학이다. 미술이나 음악에도 조선적인 향토적인 색채, 향기 등 특색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언어적이 아니오 특색 음향 형상을 주로 한 것이기에 조선적이라는 경계선이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문학은 조선 특유의 어문으로 조선인의 생활 사상 감정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조선어문을 아는 사람만이 해독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문화 부문 중에서 가장 조선적인 것은 조선문학이다.

조선인의 생활이 당분간은 조선어로라야 완전히 표현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밥을 먹는다’와 ‘御飯そ頂く’와는 문학적으로 보아서 결코 동가가 아니다. ‘御飯そ頂く’이라는 표현에는 일본적인 경신존황의 사상이 함축되어 있어서 종교적 애국적 정서를 수반하지마는 ‘밥을 먹는다’하는 것은 진실로 유물적인 외에 아무것도 없다. 불교에서 ‘공양을 잡숫는다’하는 말에는 종교적 함축이 있는 것이다. ‘여보 마누라’와 ‘わい君子’, ‘山本が’와 ‘사랑양반이’와 이 모양으로 내외간의 이인칭 삼인칭에도 통역할 수 없는 뉘앙스가 있는 것이니 이것은 생활자체의 차이다.

(나) 조선인은 쉽게 말하면 제가 조선인인 것을 잊어야 한다.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는 일찍 조선인의 동화는 일본신민이 되기에 넉넉한 정도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 일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에 와

서는 이러한 신념을 가진다. 즉 **조선인은 전혀 조선인인 것을 잊어야 한다고, 아주 피와 살과 뼈가 일본인이 되어버려야 한다고, 이것이 진정으로 조선인의 영생의 유일로가 있다고.**

인용문 (가)와 (나)는 모두 이광수가 1940년 『매일신보』에 연재한 논설 「심적 신체제와 조선문화의 진로」에서 발췌한 부분이다. (가)와 (나)의 간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인용문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인의 생활이 당분간 조선어로 표현되어야 하며, ‘밥을 먹는다’와 ‘御飯そ頂く’, 조선어와 일본어가 결코 등가가 될 수 없다고 토로했던 이광수는 같은 글의 마지막 부분인 인용문 (나)에서는 마치 앞서의 균열을 덮어버리듯, 조선인은 조선인임을 아주 망각해야 하며, 피와 살과 뼈가 속속들이 일본인이 되는 것만이 영생의 길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조선어를 쓰는 일본인이란 과연 가능한 것인가. 또한 조선어와 일본어가 완전히 등가가 될 수 없는 것이라면 내선의 일체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조선어를 기억하는 한 일본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광수가 신일본 제국의 지방어·지방문학으로, 또한 언젠가 일본어(국어)·일본문학(국민문학)으로 완전히 흡수될 과정 중인 문학과 언어로 조선어·조선문학을 잠정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만약 새로운 東亞의 도래가 “백 년 후”라면 그가 제시한 “당분간”(인용문 (가))이란 시간은 제국의 도래와 더불어 영원히 연기될 시간이 아닌가. 따라서 이광수가 언급한 “생활 자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번역불가능성’, 곧 조선과 일본, 식민지와 제국 사이의 간극은 메워질 수 없는 절대적인 거리인 것이 아니겠는가. 이광수의 발언은 이 삭제될 수 없는 간극에 대한, 달리 말하면 식민지와 제국 사이의 모방(동화) 불가능성에 대한 무의식적인 고백이었는지도 모른다. 더욱이 대동아 제국에 대한 식민권력의 구상이 “일단 일본이 맨 위에 있고, 그 나머지의 ‘여기와 여기는 같다’”³⁹⁾는 식이라면, 또한 “조선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39) 미야타 세쓰코 해설·감수, 정재정 옮김, 『식민통치의 허상과 실상』, 혜안, 2002, 88 쪽. 이 책에 실린 자료는 1958년 5월 일본에서 발족한 ‘조선근대사료연구회’가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취록한 내용을 일부 번역해 실고 있다. ‘조선근대사료연구회’에는 조선총독부 고위 관료를 지낸 일본인들과 당시 와세다 대학원생이었던 강덕상, 권영욱,

데 가장 어려운 일은 무턱대고 우리가 말하는 것에 영합하는 사람이었”(76쪽)다고 고백하는, 내선인(內鮮人)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식민자의 의식과 무의식을 떠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내선일체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꿈이며, 이광수와 같은 식민지의 혼종적 주체가 경험하는 균열은 결코 봉합될 수 없는 지점이었을 지도 모른다.

다음 장에서는 일제말기 내선일체라는 봉공의 이데올로기에 헌납된 이광수의 내선결연 소설을 통해서 바로 이 제기되는 의문의 지점들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4. ‘일체’의 판타지와 ‘균열’의 아이러니 – 이광수의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 말로(心相觸れてこそ)』와 「그들의 사랑」

이광수에게 동정(同情)은 문학/소설의 실효이며, 사랑/연애는 동정의 형식이다. 동정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묶어내는 ‘장치’이자 현실을 재구성하는 ‘정치’인 이상, 이광수에게 사랑/연애는 결코 사적인 영역일 수 없으며, 남녀 “양인이 훌륭한 직역봉공의 용사가 되고 그 주위의 사람에게 도덕적 승업을 느끼게 하는”(「심적 신체체와 조선문화의 진로」, 84쪽) 공(公)적 사업이 된다. “민족”을 상상하는 소설인 『무정』(1917)과 “조국”⁴⁰⁾을 욕망하는 내선결연 소설인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 말로(心相觸れてこそ)』(1940), 「그들의 사랑」(1941)이 유사하게 겹치는 것은 이런 까닭일 것이다. “동정의 범주를 이천만으로부터 구천만으로 확대하”⁴¹⁾는 것이 내선일체임을 웅변했던 이광

그리고 일본인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인용한 부분은 대동아공영권 논의에서 선만일여(鮮滿一如)의 의미를 놓고 한 언급이다.

40) 이광수,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 말로」(『녹기』, 1940. 3~7), 『이광수 친일소설 발굴집』(이경훈 편역), 평민사, 1995, 61쪽. 이 소설에서 충식은 불령선인(당시 식민권력이 민족주의적이거나 일체의 국책에 따르지 않는 조선인들을 일컫던 말)인 아버지 김영준에게 “싸울 수 있는 조국”을 달라고 호소한다. 『녹기』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종교(일연교) 수양단체를 표방하면서 만든 녹기연맹이 발간한 기관지였다. 녹기연맹은 내선일체운동의 사상적·이론적 뒷받침을 한 단체로 알려져 있다.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 말로」(이하 「진정」. 이하 「진정」 인용 시에는 페이지 수만 표시함)는 이광수가 이 잡지에 연재한 첫 일본어 장편소설이다.

41) 이광수, 「내선일체와 국민문학」,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 II』, 71쪽.

수는 소설 『진정』에서도 이성을 압도하고 이해를 넘어서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실천적 동력이 ‘정’이며, 내선일체의 성공 역시 조선인과 내지인 간의 동정 내지 인정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설파한다.

“아니, 어려워진 건 아무 것도 없어. 나는 원래 정(情)이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단다. 이성주의(理性主義)였다. 세상은 무엇이든지 이론대로 굴러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웬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역시 정말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예, 보통의 인정(人情)이라는 것이다. 이 인정이라는 놈이야말로 인생의 지배자처럼 생각된다. 이를테면 애국심도 그렇지 않느냐. 그건 결국 정이란 말이다. 우리가 일본을 사랑한다, 폐하를 위해 생명을 버린다, 그건 모두 이성(理性)이 아니라 정이란 말이다. (중략) 아직 정(情)이 되지 않은 이론은 요컨대 공론(空論)이지. 과학적 이론은 별도로 하고 말이야. 내선일체(內鮮一體)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내지인과 조선인이 정으로 뭉어지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빠는 법률도 인정을 기초(基調)로 해석해 보고 싶단다. 인간만사가 인정을 떠나면 실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혹시 짬이 있으면 논문을 써보고 싶다.”

-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 46-47쪽

그렇다면 이성주의가 아닌 동정주의를 통해 획득되는 내선일체란 무엇인가. 이광수는 그것이 조선인이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완전한 일본인”⁴²⁾이 되는 것, 곧 “조선인의 황민화”⁴³⁾라고 주장한다. 황민화 혹은 진짜 일본인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외형(몸)의 닮음을 넘어 바로 ‘(일본)정신’의 모방(동화)을 수행하는 일이다. “영국인과 인도인은 수만 년이 흘러도 같은 얼굴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모습만으로는 내지인과 반도인을 구별할 수 없”⁴⁴⁾다고 생각한 이광수에게 일본인의 얼굴/몸은 궁극적인 욕망의 대상이 아니었다. “조선적인 마음을 뿌리뽑”고 “정신만 일본정신”(『행자』, 198쪽)이 되면 내선일체는 완료되는 것이며, 조선인은 진정한 일본인으로 거듭나 동아 제국의 평등한 국민이 되는 것이다.

42) 이광수, 「행자」,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 II』, 197쪽.

43) 이광수, 「내선일체수상록」, 앞의 책, 244쪽.

44) 이광수, 「얼굴이 변한다」, 앞의 책, 140쪽, 142쪽.

이광수가 말한 “조선적인 마음”과 “일본 정신”의 정체란 무엇인가. 사카이 나오키의 주장을 참조하자면 이광수가 언급한 조선성(조선적인 마음)과 일본성(일본정신)이란 서로를 쌍형상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상상적 동일성이며, 서로를 대조항으로 떠받치고 있는 실체 없는 가상이다.⁴⁵⁾ 도의(道義)를 포함한 모든 윤리적이고 흠도 티도 없는 이상적인 것이 ‘일본정신’으로 상상될 때, ‘조선적인 마음’은 그 반대편에서 속속들이 열등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내선일체의 대업”(『진정』, 9쪽)⁴⁶⁾에 바쳐진 소설 『진정』과 「그들의 사랑」에서 일본인 청년 ‘히가시 타케오’(『진정』)와 ‘니시모도 다다시’가 가장 이상적인 인간/교사로 표상되며 감화의 정점에 배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수의 선인(善人, 選人)을 중심으로 위계적인 감화/공감의 구도를 만들어가는 이광수 서사의 계몽/개조 문법은 『진정』과 「그들의 사랑」에도 동일하게 관철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소설들에서 재현되는 내선일체란 일본정신의 체현자인 이상적 인간 히가시 타케오나 니시모도 다다시를 나머지 인물들-조선인과 일본인 여성 인물들이 모방하고 그에 동화되는 형식인 것이다. 이러한 모방이 과연 “조선인도 일본인도 결국 다를 바 없는”(35쪽) 구극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사랑」도 유사하지만 계몽문법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는 『진정』의 스토리는 매우 작위적이고 도식적이다. 일본인 남매 타케오와 후미에는 인수봉 등반을 하던 중 조난을 당하게 되고 역시 등산 중이던 충식과 석란 남매에 의해 구조되어 정성스러운 간호를 받는다. 이를 계기로 접촉하게 된 타케오와 후미에, 충식과 석란은 조선인과 내지인(일본인)에 대해 지녔던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청산하고 우정과 사랑을 키워가며, 또한 편견에 사로잡힌 구세대들, 즉 충식·석란의 아버지인 불령조선인 김영준과 타케오·후미에의 아버지인 일본군 대좌 히가시가 조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런데 이 골 깊은 갈등을 하나씩 풀어내는 데 언제나 주도적이며 결정적 역

45) 사카이 나오키, 앞의 책, 83-84쪽 참조.

46) 이광수는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의 연재 첫 회에 실은 <작가의 말>을 통해 이 소설이 “내선일체의 대업에 티끌만한 공헌”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것이라 밝히고 있다.

할을 담당하는 인물은 타케오이다. ‘있는’ 일본인이 아니라 ‘있어야 할’ 일본인인 타케오의 서사라고 읽힐 만큼 『진정』에서 타케오의 비중은 소설 전체를 압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고 “좋은 사람”(21쪽) 정도에 머물렀던 청년 타케오가 범접할 수 없는 숭고한 인간으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보다 특별한 계기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제국의 전쟁이다. 타케오는 어느 날 참전을 결심하고, “칠천만과 이천만이 빈틈없이 일체가 되어 인류를 이끌기에 족한 높고 힘 있는 일본을 만들기 위해 군의 고귀한 생을 바쳐”(56쪽) 달라는 편지를 충식에게 전하고 전쟁에 나가며, 충식은 그 내용에 마음이 격발해 역시 군의(軍醫)로 전쟁에 참여한다. 그리고 다시 석란과 후미에가 타케오와 충식에 감화되어 간호사로 참전을 결행하게 된다. 가히 감화의 연쇄인 셈이며, 이 공적(公的) 공감의 정점에는 물론 히가시 타케오가 있다. 이 광수는 이어 『무정』에서의 삼랑진 수해복구 장면을 연상시키는 ‘전쟁(戰場)의 만남’이라는 드라마틱한 사건을 준비한다. 충식이 나가 있는 야전병원으로 석란과 후미에가 도착하고 최종적으로 부상을 당한 타케오가 이들이 있는 곳으로 이송되어 오는 것이다.

마지막 남은 갈등을 말끔히 씻어내고 이형식을 위대한 교사로 추대하는 것이 『무정』의 삼랑진 장면이듯, 전쟁과 타케오의 부상은 이 내선의 청년들 사이에 남은, 혹은 오해와 편견이 답습된 구세대들에 의해 여전히 야기되고 있는-특히 타케시와 후미에의 부모는 충식과 후미에, 타케오와 석란의 사이가 연애편계로 발전하는 것을 내내 경계한다-갈등과 양극을 망각하거나 덮어버리고 이들 신세대 청년들이 신일본/대동아 제국을 위해 기투하는 대단원을 마련한다. 이러한 내선일체의 대단원을 견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은 물론 부상으로 시력을 잃은 타케오이다. 타케오의 훼손된 몸은 그의 존재를 퇴색시키거나 무력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그를 ‘정신’의 결정체이자 신성한 영웅으로 승격시킨다.⁴⁷⁾ 타케오를 빛/태양과 연결시키는 다음과 같은 대목은 바로 그가 ‘日의 本’, 곧 일본정신의 표상

47) 소설의 말미에서 타케오는 석란에게 오히려 시력을 잃은 “장님이 되고 나서 도를 깨달”(99쪽)은 것 같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한다.

으로 추대되는 장면이 아닐까.

타케오는 햇빛의 감촉을 찾기라도 하려는 듯이 얼굴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다. 석란은 조용히 방향을 돌려 타케오가 태양을 향해 정면이 되는 위치에 세워주었다.

“음, 여기 햇님이 있군요—신기하게도 햇빛의 감촉이 있네요.”하고 타케오는 즐거운 듯이 말했다.

“음, 역시 조금은 빛이 보이는 듯하다.”

“당신은 눈에 붕대를 하고 계시는 걸요.”

“하하하하. 붕대를 하건 안 하건 내 눈은 똑같아요.”

타케오는 쓸쓸하게 웃었다.

“이제 피곤하지시요, 돌아갈까요?”

석란은 타케오에게 빛에 대한 슬픔을 이 이상 느끼게 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아뇨, 아뇨. 아직 피곤하지 않아요. 좀더 견게 해주세요. **빛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산도 보입니까?”

타케오는 산을 찾으려는 듯이 머리를 돌렸다.

-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 80-81쪽

몸의 인간이 아닌 ‘정신(빛/태양)’의 인간이 된 이 성스러운 타케오와 각성 중인 범인(凡人) 석란이 결연되는 길은 석란이 그의 몸(눈), 그의 “지팡이”(81쪽), 그의 말씀을 대리하는 ‘통역자’가 되는 것이다. 시력을 상실한 타케오는 적진인 지나(중국)군 진영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일본의 진의(眞意)와 아시아의 대세”(79쪽)를 전하고 서로 협력해 “아시아를 아시아인의 아시아”(96쪽)로 만들자고 웅변함으로써 중국군을 회유하는 선무공작원, 다시 말해 일본정신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다고 나선다. 석란은 이런 타케오의 신성한 결단에 틈 없이 감화되며, 그리하여 타케오 곧 일본정신에 “순(殉)”하는 것이 “여자의 길”(85쪽), 즉 조선의 길임을 수락한다.⁴⁸⁾ 중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한 석란은 타케오의 “마음”(95쪽)을 중국군 적장에게 전달하는 ‘통역자’로 나서며, 그것이 “일생일대의 대역”(95쪽)이

48) 조선/식민지와 일본/제국의 관계를 여성/남성의 관계로 젠더화하는 내선 연애소설의 성정치에 대해서는 심진경의 「식민/탈식민의 상상력과 연애소설의 성정치」(『민족문학사연구』, 2005)를 참고할 수 있다.

라고 결정하는 것이다. 기실 충실한 통역자로서의 석란/조선의 위치는 소설 초반부터 환기되고 있었다. 석란은 타케오가 “진짜 조선인 아가씨”인지 의심할 정도로 “일본어가 훌륭”(15쪽)하였으며, 타케오와 그녀의 아버지인 김영준, 김영준과 타케오의 아버지인 히가시 대좌 사이에서 시종일관 유연한 통역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이러한 석란은 ‘전쟁’이라는 매우 예외적 계기를 통해서 갈등을 무마하고 타케오와 마침내 맺어질 수 있었으나, 이미 이 결연은 평등하지 않으며 또한 이들 사이의 평등은 이미-언제나 유예되어 있다. 숭고한 일본정신의 표상인 타케오와 그의 충실한 눈이자 지팡이이자 통역자인 석란의 결합에는 명백한 ‘위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광수이자 가야마 미쓰로우(香山光郎)인 식민지의 내선인 작가는 완벽한 정체(精體)로서의 일본정신을 상상하고 그 정신의 원상(原像)으로 타케오라는 판타지를 만들어내며, 그를 열심히 통역해/모방해 궁극에는 그와 평등한 국민이 되기를 욕망하는, 단 한 치의 틈새도 불허하는 내선일체의 멜로드라마를 쓰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판타지가 오히려 식민주의-내선일체를 통한 평등한 국민 되기/만들기-의 균열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정신의 원상(原像)인 타케오와 그를 모방하고 순(殉)하는 “춘향사상”(85쪽)을 내면화한 식민지의 석란, 충식 그리고 후미에마저도 타케오와 영원히 평등해 질 수는 없다. 원상/원본에 대한 모방본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그들은 타케오와 결코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 없으며, 일본인, 곧 제국의 온전한 국민이 아닌 내선인(內鮮人)이나 준일본인(이등국민)으로 그 이동이 멈추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인도 일본인도 아닌 이 식민지의 저주 받은 내선인들은 언제나 일본정신의 원상, 완전한 일본국민인 타케오의 ‘결여’이거나 ‘과잉’으로 남게 되며, 과잉은 언제나 결여의 짝패이다.

이광수의 「그들의 사랑」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결여와 과잉 사이를 오가며 미끄러지는 내선의 일체를 향한-일본인이 되려는-내선인들의 욕망이다. 1941년 잡지 『신시대』에 3회 연재되었던 「그들의 사랑」에서 30대 젊은 이학자 ‘리원구’ 혹은 ‘마끼하라 가즈지’는 가솔린에 대용될 인조연료의 제조법을 완성해 신문에 대서특필

된다. 소설은 이 현재의 시점으로부터 그의 과거를 되감기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는 빈한한 농촌 출신 조선인 청년 리원구가 가솔린 대체연료 발명으로 제국의 전쟁에 기여하는 과학자 ‘마끼하라 가쓰지’로 성숙하는 과정을 부각하는 서사적 경로인 셈이다. 리원구가 마끼하라 가쓰지로 이름도 정신도 변태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은 역시 일본인들이다. 『진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식민지 조선인들이 국민이 되는 방법은 반드시 진정한 일본인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리원구/마끼하라 가쓰지는 공적 미디어(신문)를 통해 아버지가 없는 어린 자신을 키운 진정한 아버지가 은사 가쓰하라 교수와 니시모도 박사라고 공식화한다. 그러나 실상 이들은 리원구를 마끼하라 가쓰지로 이동시킨 결정적 견인자들이 아니며, 더구나 새로운 제국 건설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도 없다. 민족이나 국민과 같은 집단적 주체를 상상한 이광수가 언제나 호명했던 것은 ‘청년’이었다. 조선인 청년 리원구를 “딸 미지끄를 유혹한다는 이유로 큰 모욕을 주어 내어쫓은”⁴⁹⁾ 니시모도 박사는 리원구가 자신의 일본성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존재일지언정, 이광수가 욕망하는 일본정신의 표상이자 대동아 제국의 국민으로 모방하고 싶은 대상은 아니다. 말하자면 소설 『진정』의 타케오와 같은 위상을 지닌 존재가 필요한데, 「그들의 사랑」에서 이 역할을 떠맡고 있는 인물은 니시모도 박사의 아들인 ‘다다시’이다. “순결한 제국청년”(109쪽) 다다시는 가난한 조선인 학생 원구의 마음을 처음으로 수락한 자이며, 마치 로빈슨 크루소가 프라이데이를 발탁하듯, “조선동포가 일본국민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원구를 통해 “실험”(113쪽)하고자 한다. 그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구를 자신의 집으로 들이며, 이를 통해 다다시와 원구는 적대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서생’(131쪽)’의 관계로 재정립된다.⁵⁰⁾ 서생이 된

49) 이광수, 「그들의 사랑」(『신시대』, 1941. 1-3), 『이광수 친일소설 발굴집』, 103쪽. 이하 인용은 쪽수만 표시함. 잡지 『신시대』는 1941년 1월 창간돼 1945년 2월까지 발행된 친일적 성향의 대중 잡지이다. 『신시대』의 편집 겸 발행인은 박문서관과 대동인쇄소의 경영주였던 노익형이었다. 『신시대』에는 조선어와 일본어가 혼용되어 있다. 『신시대』에 대해서는 오태영, 「다이글로시아와 언어적 예외상태-1940년대 전반기 잡지 『新時代』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54집, 99-133쪽 참조.

50) 다다시의 동생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들어간 원구는 스스로를 다다시의 ‘집에 부

원구는 이제 흠결 없는 순결한 주인 다다시의 부름에 응답하는 주체가 되며, 그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138쪽) 인간임을 승인 받기 위해 분투한다. 그러나 다다시라는 판타지 혹은 일본성을 모방/욕망하면 할수록 원구의 의식을 더욱 강렬하게 점령하는 것은 그와의 차이이며, 이 차이는 고스란히 일본성의 결여로서 조선성이라는 대쌍(對雙)의 판타지를 사실로 오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원구는 일본인의 시선으로 구성된 모든 열등한 표지들, 즉 ‘흠치는 버릇, 거짓말, 불결함, 신의 없음, 낮은 도덕생활정도, 대바르지 아니함(ひねくれている)’⁵¹⁾을 조선인의 “흠점”(147쪽)으로 수리(受理)하며, 흠점 있는 결여의 조선인이 아니라 성실하고 순수한 “일본신민”(148쪽)으로 비준받기 위한 과잉의 노력을 행하는 것이다. 가령, 그는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아니하기로 결심”하며 “한번 승낙한 일이면 꼭 이행하기로 힘”쓰고, “대바르기”와 “素直(すなほ)하기”(147쪽)에 진력한다. 또한 생활은 일본정신을 구현하는 지표이므로, 더러운 조선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청결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기도 한다.

원구가 가장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것은 소제였다. 원구는 청결의 새 습관을 얻어서 제 방과 제 눈에 띄우는 것, 제 손에 닿는 데는 어디나 청결하게 하였다. 청결이 습관이 될수록 불결한 데가 눈에 띄었다. 거미줄 하나, 먼지 하나 있는 것이 다 마음에 걸렸다.

썰고 흠치고 치이고, 그것이 확실히 큰 낙이었다. 원구는 이발과 면도도 자조하였다. 손톱에 조금만 검은 때가 보여도 참을 수가 없었다. 학교에 다녀와서는 세수하고 발을 씻지 아니하고는 방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 같고 하물며 남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 같았다.

“君は随分潔癖だね (자넨, 너무 까다롭군).”

다다시가 원구에게 이런 소리를 하게까지 되었다.

원구는 말없이 빙그레 웃었다. 그러나 그 칭찬은 고마웠다.

“朝鮮人はきたない (조선사람은 드럽다).”라는 말을 원구도 무척 많이

쳐서 사는 서생”의 위치로 지정하며, 다다시의 동생인 미찌코에게 애정을 품고 있으면서도 감히 “주인택 아가씨”를 넘볼 수 없다고 괴로워한다.

- 51) 이광수는 「병역과 국어와 조선인」(『신시대』, 1942. 5)에서도 조선인이 비평되고 있는 결점을 거짓말 하는 것, 책임 관념이 희박한 것, 이기적인 것, 고식적인 수단을 좋아하고 원대한 심사숙고가 없는 것 등이라 지적하고, 이를 가장 견디지 못하는 태도로 비판하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황민이 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 II』, 338-341쪽)

들었다.

- 「그들의 사랑」, 144쪽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인이 되고자 욕망하는 원구는 언제나 일본인의 결여이거나 과잉으로 미끄러지며, 때문에 끝내 일본인에 도달하지 못한다. 기실 원구가 모방하는 일본인(일본성)이 일종의 판타지인 이상 원구의 꿈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일본인에 미달되거나 일본인을 초과하는 그는 결국 일본인과 “거의 동일하지만 똑같지는 않은 존재”⁵²⁾, 번역불가능성의 잉여/차이를 삭제하지 못하는 존재, 때문에 조선인도 일본인도 아닌 ‘내선인’으로 남는 것이다.

“例へば、君のお作法とか、日本語の發音やイントネーションや、われわれと違っているものがあるだらう。もつとも今ちや、それれさへ、殆んど完全に消滅しているがね。それをね、その作法や言葉の違をさ、何か限りなく大きい相違の中の、ちよつぱり見はれたものと勘違したんだね。大洋の水面に見はれた冰山の一角と思つたわけだね。ところが、いよいよ君の正體が解つて見ると、言葉の訛やお作法の相違しかわれわれと違っているものはないんだよ。つまりわれわれが警戒していたのは大冰山の一角ではなくて、たつ一片の誠た取るに足らない一冰片に過ぎなかつたんだ。(후략)

(이러테면, 자네의 예법이라든가, 일본어의 발음과 인터네순이 우리들 하고는 다른점이 있지 않나. 무엇 지금에는 그것마저 거의 사라지고 없지만. 그것을, 예법과언어의 상위를 바로 무슨 한없이 큰 틀린점가운데의 조그맣게 나타난것으로만 그릇 여긴것일세. 그러나 정작, 자네의 정체를 알고보니, 사투리와 예법의 상위밖에는 우리들과 다른점이 없었던말이야. 결국 우리들이 경계했던 것은 큰빙산의 일각이 아니고 단 한 조각의 정말로 하찮은얼음 덩어리에 불과했던걸세.) (후략)”

- 「그들의 사랑」, 139쪽

위의 인용문은 원구에게 실험이 성공적이었음을 알리는 다다시의 말이다. 그는 원구를 통해서 조선인들이 자신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는 아니며, 그러므로 조선인의 일본인(일본국민) 되기가 충분히 실

52) 호미 바바,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178쪽.

현가능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통보한다. 그러나 “일본어의 발음과 인터내순”이나 “예법”의 “상위(相違)”, 비록 “단 한 조각의 정말로 하찮은얼음 덩어리에 불과”한 것일지라도 여전히 남아 있는 이 차이는 과연 극복될 수 있는 것인가. 인용문에서와 같이 내선의 일체를 위해 국어(일본어)와 조선어를 나란히 배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이 기괴한 이중의 언어 배치 속에서 조선(어)과 일본(어)의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노출되듯이, “거의 사라지고 없지만” 그러나 완전히는 사라지지 않는 이 하찮은 얼음 한 조각의 차이가 실은 내선일체/식민주의를 내파하는 큰 빙산만큼의 간극인 것이 아닐까. 때문에 다음과 같은 번역 불가능성의 흔적은 의미심장하게 읽힌다.

“(…)君をわれろと全然違つたものと思ひこんどいるから始めから君の一言一動を、警戒穿鑿の眼を以つて見る。さういふ眼でみるから何んだが、われろのすることと違つているやうに感ずる。そこでますます警戒と穿鑿を加へる。ますます疑を起して氣まづくなる。遠ざかる、といつたわけなんだよ
疑心暗鬼だよ

((…)자네를 우리들과는 아주 다른것으로 생각하고만 있으니가, 처음부터 군의 일언일동을, 경계와 천착의 눈으로 보지. 그렇게만 보니 어쩐지 우리들의 하는일과는 딴 것으로 느껴지네. 그러니 더욱 경계와 천착을 더하네. 자꾸자꾸 의혹을 일으켜서 거북하게 되고 멀어지고, 하는 까닭일세. **의심암귀**야.)”

- 「그들의 사랑」, 137-138쪽

인용문에서 다다시는 원구를 통해 “조선동포 전체를 재인식”(137쪽)하기 이전, 자신을 포함한 대다수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조선인에 대한 그릇된 “경계”와 의혹어린 “천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원구가 국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이후, 다다시는 적어도 자신이나 여동생 미찌코 혹은 그의 가족들만은 원구에 대한, 나아가 조선인에 대한 “疑心暗鬼”, 곧 ‘망상에서 오는 공포’⁵³⁾를 털어버리게 되었다고 선언한다. 조선인이 내지인과 다르지 않고,

53) ‘의심암귀’의 의미는 『이광수 친일소설 발굴집』을 편역한 이경훈의 주석을 따른 것이다.

내선(內鮮)이 제국의 국민으로 일체가 될 수 있음을 감격스럽게 공포하는 이 장면은 그러나 내선일체가 균열하는 흔적을 은연중에 남긴다. 일본어에서 사용되는 “疑心暗鬼”와 대체가능한 조선어를 찾을 수 없었던 이광수는 글자만 조선어의 형태를 취했을 뿐 의미가 증발된 “의심암귀”로 쓰고 있다. “疑心暗鬼”와 “의심암귀”는 과연 동일한 것인가. 이광수가 언급한 바처럼 ‘밥을 먹는다’와 ‘御飯を頂く’가 같을 수 없다면 “疑心暗鬼”와 “의심암귀”는 더더욱 등가일 수 없을 것이다. 조선어와 내지어(일본어) 사이에 존재하는 이 통약 불가능의 흔적은 조선인/피식민자를 향한 일본인/식민자의 ‘공포’와 ‘경계’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일본인/식민자를 향한 조선인/피식민자의 “僻み”(111쪽), 곧 ‘비뚤어진 마음’ 역시 삭제되지 못할 것임을 보여주는 증좌가 아닐까. 조선과 일본, 식민지와 제국 사이의 번역(모방)에 투입하는 이 술한 ‘정지’야말로 내선일체/식민주의가 스스로 균열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판타지임을 증명하는 예외적 순간일지 모른다. 또한 이 문제적인 멈춤의 순간들은 「그들의 사랑」이 비록 3회로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 할지라도, 원구와 미찌코의 사랑을 통해 내선의 평등한 일체를 상상한 이광수의 욕망, 이 식민지 내선인의 신앙이 끝내 좌절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징후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소설 『진정 마음이 만나 서야말로』처럼 내선의 결합은 다만 전쟁과 같은 예외적 계기를 통해서나 가능하며, 이미 수많은 불평의 균열을 내장한 평등한 해피엔딩임을 불현듯 노출하는 서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아이러니하게도 내선일체에 철두철미 헌납된 이광수의 투명한 멜로드라마들은 도리어 그 불가능성을 확인시키는 이렇듯 모호하고 불투명한 서사가 되는 것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 내선인(內鮮人)의 문학과 침묵의 발화들

식민지/조선과 제국/일본의 사이를 유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피식민자들의 실존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내선인(內鮮人)이란 모든 식민

지 조선인들에게 부여되어야 할 명명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재서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제말기 내선일체의 강령이 야기한 식민지인들의 혼란과 분열은 이전과는 확연히 차원과 강도를 달리한 것이었다. 조선인/민족을 삭제하고 일본인/국민을 새롭게 기입하라는 내선일체의 강력한 요구는 최재서의 고백처럼 지성적 이해와 감성적 습관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었으며, 오직 사유를 멈추고 천황/살아있는 신에 절대적으로 기투하는 신앙의 힘을 빌어서만이 내부의 격심한 갈등과 균열을 초극할 수 있는 것이었다. 신앙/판타지로 갈등을 삭제하고 식민제국의 욕망을 모방하면서도 스스로 일본/국민임을 지시하는 순간 망각되어야 할 조선/민족이 귀환하는 내선인(內鮮人)들의 서사는, 그러므로 저항과 협력의 투명한 틀이 놓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균열을 내장하고 있다.

일제말기 내선일체의 국책에 일정하게 연동하면서 등장한 내선연애/결혼 소설을 내선인의 서사로 재독하고, 자기동일성을 유지한 투명한 조선인과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과 일본인의 사이 지대에 놓인 불안정하고 모호한 내선인과 일본인의 서사로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식민제국의 언어(일본어, 고쿠고)를 번역/통역 가능했던 소수의 식민지 주체들이 상상한, 일본어나 혹은 조선어-일본어의 이중 언어적 틀 속에서 대부분 기록된 이들 서사에 나타나는 균열은 저항 대 협력이라는 단선적 시선으로는 포착 불가능한 잉여의 흔적들을 남긴다. 흔적으로 기입된 이 잉여 혹은 균열이란 어쩌면 내선일체의 식민주의를 근본적으로 심문하고 내파하는 침묵의 발화이며, 또한 명시적인 작가의 발화 너머에 있는 텍스트의 발화가 아닐까. 그것은 내선일체를 웅변하는 이광수의 내선결연소설이 도리어 그 불가능성을 고백하는 서사가 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때문에 “문예는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높은 뜻에서 정치 그 자체”(「문학자와 세계관의 문제」)라고 주장했던 최재서의 발언은 어쩌면 정당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식민 정치에 응답하는 문학에 대한 요구가 그 발화의 맥락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과 과학을 주지로 비평했던 최재서는 문학의 객관적이고 엄연한 진리를 그 불

순한 맥락 속에 담고 있는 것이다. 문학이 항상 작가의 의도와 욕망을 초월하는 생물(生物)이며, 그러므로 식민주의를 포함한 모든 정치를 분절하는 정치임을 최재서의 발언은 다시 확인시킨다. 자크 랑시에르가 주장하듯이 문학의 정치는 작가의 정치가 아니며 그 자체로 정치행위를 수행하는 정체인 것이다.⁵⁴⁾ 이는 우리가 일제말기의 내선 연애·결혼 소설을 내선인(內鮮人)의 문학으로 재독하고, 그 불온한 텍스트 속을 떠도는 침묵하거나 혹은 미끄러지는 발화들에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제어 : 내선일체, 내선인, 내선 연애/결혼, 멜로드라마, 이광수, 식민주의, 혼종, 균열

참고문헌

1. 1차 자료

- 김동인(1976), 「문단삼십년사」, 『김동인전집 6』, 삼중당.
 김병걸·김규동 편(1986), 『친일문학작품선집 1』, 실천문학사.
 이정훈 편역(1995), 『이광수 친일소설 발굴집-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 평민사.
 _____,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 II』, 평민사.
 임종국 편(1987), 『친일논설선집』, 실천문학사.
 홍선영·박미경·채영님·윤소영 역(2007), 『일본잡지 모던 일본과 조선 1939』, 어문학사.
 홍선영·박미경·채영님·윤소영 역(2009), 『일본잡지 모던 일본과 조선 1940』, 어문학사.
 『국민문학』, 『삼천리』, 『인문평론』, 『조선일보』

2. 2차 자료

- 곽은희(2011), 「낭만적 사랑과 프로파간다」, 『인문과학연구』 36집, 167-188쪽.

54) 자크 랑시에르 지음, 유재홍 옮김,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09, 9쪽.

- 김승태(2010), 「일본의 식민지배와 식민통치 이데올로기」, 『근대열강의 식민통치와 국민통합』, 동북아역사재단, 231-233쪽.
- 미야타 세쓰코 해설·감수, 정재정 옮김(2002), 『식민통치의 허상과 실상』, 해안, 88쪽.
- 사카이 나오키 지음, 최정옥 옮김(2008), 『일본, 영상, 미국』, 그린비, 41-44쪽, 83-84쪽.
- 심진경(2005), 「식민/탈식민의 상상력과 연애소설의 성정치」, 『민족문화사연구』, 163-189쪽.
- 오태영, 「다이글로시아와 언어적 예외상태-1940년대 전반 잡지 『新時代』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54집, 99-133쪽.
- 요네타니 마사후미 지음, 조은미 옮김(2010), 『사이間에서 근대의 폭력을 생각한다』, 그린비, 155쪽, 161쪽.
- 윤대석(2006),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 이상경(2003), 「일제말기 소설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충위」, 『친일문학의 내적논리』, 역락, 121-152쪽.
- 이영재(2011), 「황군의 사랑, 왜 병사가 아니라 그녀가 죽는가」, 『근대한국, ‘제국’과 ‘민족’의 교차로』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기획), 책과함께, 123쪽.
- 자크 랑시에르 지음, 유재홍 옮김(2009),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9쪽.
- 장용경(2007), 「일제말기 내선결혼론과 조선인 육체」, 『역사문제연구』 제18호, 역사비평서, 202쪽.
- 정영혜 지음(2011), 후지이 다케시 옮김, 『다미가요 제창』, 삼인, 48쪽, 50쪽.
- 조윤정(2009), 「내선결혼 소설에 나타난 사상과 욕망의 간극」, 『한국현대문학연구』 27, 241-276쪽.
- 조진기(2007), 「내선일체의 실천과 내선결혼 소설」, 『한민족어문학』 50, 433-466쪽.
- 호미 바바(2002),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178쪽.
- 황호덕(2007), 「國語와 朝鮮語 사이, 內鮮語의 존재론」, 『대동문화연구』 제58집, 135-182쪽.

이 논문은 2011년 11월 2일 투고 완료되어

2011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1년 12월 21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김경연

소속 :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주소 : [609-735]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산30번지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전자우편 : ssday426@naver.com

All in one Korea-Japan(Nae-sun-il-che) Melodrama and the Rupture of Colonialism in Lee Kwang-su's Works of Korea-Japan Love and Marriage

Kim, Kyoung-yeon

[Abstract]

This paper sets off to re-read the stories, dealing with nae-sun-il-che(All in one Korea-Japan, 內鮮一體), the assimilation of Korea and Japan, of love and marriage, in the late Japanese imperialism, not as merely stories, but as texts of Korean-Japanese(內鮮人), a Korean who realigns himself with a Japanese policy of becoming Japanese. The previous studies see the stories merely as the either-or of resistance/collaboration, but I argue that the oblique line could be effaced and the uncertain space between them could be explored. This means that they are not the narratives of Korean-Japanese love and parting, but melodrama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Korean-Japanese and Japanese.

First of all, in this paper, I investigate some facts of the theory of nae-sun-il-che, and trace along the conscious depths of Korean-Japanese connected with the theory, which is a critical reference point for re-reading the relation between the melodrama of assimilation and Japanese colonialism. Based on this standpoint, I attempt to find out the rupture of colonialism in Lee Kwang-soo's works.

For the being of the colonized cannot but be that of flowing between colony and empire, Korean-Japanese, in a sense, may be the name which should be given to all the Koreans in that era, but as Choi Jae-suh remarks it, the doctrines of nae-sun-il-che caused chaos and disruption, more intensively. Korean-Japanese eliminate the conflict between the Koreans and the Japanese with faith/fantasy, imitate the empire's desire, and set up for becoming Japanese. But It is when their narratives are returned to the nation/ the Korean that they reveal a number of rupture that were ignored in the transparent frame of resistance/collaboration, which means that in an effort to re-read the works of Korean-Japanese love and marriage under the influence of nae-sun-il che, they can be regarded as the narratives, not between Cheo-sun people(Koreans)

and Japanese, but Korean-Japanese, placed in the rift between them, and Japanese.

The ruptures of which a few intellectuals who could translate the language of the colonizing empire conceive in the frame of the double language(Japanese or Korean-Japanese) leaves traces of surplus uncaptured by the notion of resistance/collaboration.

The surplus inscribed as traces fundamentally interrogates the colonialism of nae-sun-il-che and are the utterance of the texts beyond that of the writers. It is the reason that Lee Kwang-soo's works of nae-sun love and marriage do not purport nae-sun-il-che, but confess the impossibility of the theory.

Keywords : All in one Korea-Japan, Korean-Japanese, Korean-Japanese love and marriage, melodrama, colonialism, Lee Kwang-soo, hybrid, rupture